

5·18기념재단 기록물 관리 '주먹구구'

도서·성명서 등 22만건 목록조차 정리 안돼

훼손·분실 우려...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절실

5·18 기념재단이 수집·보관중인 도서·성명서 등 5·18 기록물을 허술하게 관리해 재단 고유 업무를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18 기념재단조차도 5·18 기록물 보유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가 하면, 목록에서 제외된 기록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보유 중인 5·18 기록물은 ▲5월 운동 관련기록물 4000점 ▲자체 생산·접수·수집·기증 기록물 3만6400점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 1600점 ▲도서(간행물)류 3000점 등 4만5000점 등에 이르지만 전자 기록물의 경우 정확한 집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자기록물의 경우 파일 수량만 대략 22만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뿐, 정리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1개 파일에 관련 기록물

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목록에 등재된 기록물 여부를 비롯, 기록물에 대한 효과적인 검색 작업도 불가능하다는 게 기념재단 측의 설명이다.

예컨대 전문적 기록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니 5·18 기록물 데이터 검색 과정에서 찾고자 하는 기록물 이름이나 출판사명 없이 기록물 내용으로는 검색이 어려워 5월 광주항쟁을 알리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기념재단도 이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난해 ▲공공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5·

18 민주항쟁에 대한 왜곡·편향 적극적 대응 위한 기록물 활용 ▲방대한 소장기록물 보존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 및 중·장기 수집정책 마련 등을 위해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그러나 예산 확보에 실패,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조만간 문을 열 예정인 5·18 기록관과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념재단이 5월 광주민주항쟁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해 활용할 기록물을 소홀하게 취급하면서 항쟁 진행되는 5월 정신 계승 및 교육, 민주·평화·인권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사랑의 교복 나눔행사 '복적'

25일 광주시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랑의 교복 나눔행사'에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교복을 고르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복 나눔행사는 교복 1벌에 4000원, 코트 5000원, 책가방 3000원 등에 판매되고 수익금은 (사)광주북구장학회에 기탁할 예정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음독·투신...민원인 극단 행동 잇따라

전남지사 면담 40대 여성 음독...북구청신청 기초수급자 투신 소동

전남도청 도시사 비서실에서 40대 민원인이 음독을 시도했고, 광주의 한 구청에선 40대 남성이 투신 소동을 벌였다.

25일 오전 11시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9층 도시사 비서실에서 민원인 최모(여·47)씨가 극약을 마셔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날 이낙연 지사와 면담 직후 외부 약속 때문에 이 지사가 자리를 뜨자 미리 준비한 극약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화순 이양-장흥 유치 지방도 개설과 관련해 나무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전남도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이날 지인 2명과 함께 이낙연 지사와 면담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최근 도로공사 과정에서 성토된 토지의 배수불량으로 배통 나무 822그루가 고사해 1억5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지난 24일 밤 10시 광주시 북구 용봉동 북구청사 3층 난간에선 민원인 신모(45)씨가 투신하려는 것을 구청 직원이 발

견, 경찰 등에 신고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신씨는 이날 난방비 추가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 구청을 찾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지난날 15일 한 차레 분신자살 소동을 벌였으며 지난 19일엔 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24면 발행·호보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7 달뜨기 12:04
해질 18:25 달지기 01:22

모처럼 맑은 햇살

고기압의 영향으로 흐리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다.

지역별 날씨(°C)

광주	후미	4/8	보성	후미	3/8
목포	후미	4/5	순천	후미	5/10
여수	후미	6/10	영광	후미	4/6
나주	후미	3/8	진도	후미	4/5
완도	후미	4/7	전주	후미	4/7
구례	후미	4/9	군산	후미	4/6
강진	후미	4/7	남원	후미	3/7
해남	후미	4/7	홍산도	후미	4/5
장성	후미	3/7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파고(m)	풍향	파고(m)	풍향
서해	남해	북서~북	0.5~1.5	북서~북	1.0~2.5
	동해	북서~북	1.0~2.5	북서~북	1.5~3.0
남해	남해	북서~북	0.5~1.5	북서~북	0.5~2.0
	서부	북서~북	1.0~2.0	북서~북	2.0~3.0
제주	서부	북서~북	1.0~2.0	북서~북	1.0~2.5
	동부	북서~북	1.0~2.0	북서~북	1.0~2.5

생활지수

동파	25
운동	60
빨래	60

주간 날씨

27(금)	28(토)	3/1(일)	2(월)	3(화)	4(수)	5(목)
☀	☁	☁	☀	☀	☀	☀
-2/4	-1/7	3/8	1/9	1/10	1/7	-2/6

'화재참사'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법인 해산

장성 효사랑전사나눔요양병원(이하 효사랑병원) 방화 참사와 관련, 병원 실질적 운영자인 이사문(54)씨가 설립한 효문의료재단의 해산 결정이 났다.

전남도는 장성 효문의료재단에 대한 해산 신청서가 지난 5일 접수돼 해산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사상자 29명의 방화 참사가 발생한 이후 9개월여만에 의료 법인이 해산되는 것으로, 불을 지른 차매노인과 병원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지 3개월 만이다.

장성군은 법인 해산에 따른 후속 조치(의료법 제64조)로 지난 13일 재단 측에 효사랑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장성군은 27일 청문을 거쳐 최종 개설 허가 취소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찰로부터 통보된 요양급여 환수와 관련, 효문의료재단측에 401억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했지만 아직 환수하지 못한 상태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에 문승현 교수

지스트(GIST·광주과학기술원) 제7대 총장에 환경공학부 문승현(58·사진) 교수가 선임됐다.

지스트 이사회(이사장 이운우)는 25일 오전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7대 지스트 총장에 문승현 교수를 선임했다.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문 신임 총장은 미국 일리노이공과대학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문 신임 총장은 1994년 지스트 환경공학과(현 환경공학부)에 부임해 환경공학과 학과장, 지스트 국제환경연구소장, 교학처장, 지스트 솔라에너지연구소장(현 차세대에너지연구소)을 역임했



으며, 2006~2008년에는 부원장 및 원장 직무대행직을 맡기도 했다. 문 신임 총장은 25일부터 업무에 들어갔으며, 임기는 2019년 2월 24일까지 4년이다.

문승현 신임 총장은 "지스트 총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신 이사진여 여러분과 총장 궐위 기간에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를 다해 주신 지스트 교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2007년 이후

아파트 담보대출 및 분양 잔금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나대지 원룸

담보 비율 : 최대 70%
최저 연 3.8%~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연금수급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 최대 5년
연금리 : 최저 7.0%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령고등학교 옆)